

(주소) 1538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전화) 031-481-7000 (팩스) 031-481-7053

배 포 일	2024. 4. 12.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 즉시				
경기도미술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 개최		10	12	gmoma.ggcf.kr	부서 :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 담당 : 조민화 학예연구사 전화 : 031-481-7032

경기도미술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 개최

전 시 명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
전시기간	2024. 4. 12.(금) ~ 7. 14.(일)
전시장소	경기도미술관 전시실1-2, 프로젝트 갤러리, 로비
전시부문	회화, 조각, 영상, 설치, 사운드, 사진, 퍼포먼스 등(총 44점)
참여작가	권용래, 김명희, 김윤수, 김준, 김지영, 무진형제, 리슨투더시티, 송주원, 안규철, 윤동천, 오로민경, 이우성, 이정배, 이진주, 전원길, 홍순명, 황예지 총 17인(팀)
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협력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전시담당	조민화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 ▶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추념전 《우리가, 바다》 개최
- ▶ 사회적 참사에 대해 예술이 전하는 '기억', '위로', '바람'을 담은 44점 작품 전시
- ▶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와 유가족들의 공예작품 '4.16 공방' 전시 진행
- ▶ 퍼포먼스, 작가와의 대화, 워크숍, 학생 단체 전시 투어 등 연계 프로그램 풍성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4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를 개최한다. 전시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재난에 대한 사회적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은 참사 당시 합동분향소가 있던 화랑유원지에 위치해 있으며 단원고등학교를 마주하고 있다. 미술관은 안산의 지역공동체로서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질문하고 시민들과 함께 10주기를 추념하며 재난의 상흔에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자 한다.

《우리가, 바다》는 세월호참사 이후 슬픔과 고통을 내포한 '바다'가 그 이전과 같은 바다가 될 수는 없지만, 생명과 순환을 상징하는 '바다'의 의미를 소환하여 사회적 재난을 비춰보고자 했다. 전시의 제목인 "우리가, 바다"는 3가지 '바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재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함을 의미하는 '바로 보는 바다'이다. 둘째는 재난을 겪는 사회에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전해야 할 위로를 담은 '바라보는 바다'이다. 셋째는 재난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

고 함께 이루어야 할 바람을 담은 '바라는 바다'이다. 3가지 뜻의 '바다'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바(로보)다"

"우리가, 바(라보)다"

"우리가, 바(라)다"

전시에는 회화·조각·영상·설치·사운드·사진·퍼포먼스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17인(팀)의 작가가 참여하였고, 특히 1940년대생부터 1990년대생까지 세대를 넘어 공통의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예술가의 사유를 전한다. 작가들의 사유는 매체도 세대도 주제도 다르지만 결국 예술을 통해 공통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이야기로 수렴된다.

'우리가, 바로보다'는 세월호참사를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 또는 개인의 경험에 비롯되었으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우리가, 바라보다'는 희생자와 유가족 뿐 아니라 참사를 바라보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겪었을 아픔에 대해 예술로서 위로를 전한다. 특히 안무가 송주원의 <내 이름을 불러줘>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댄스필름으로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몸짓으로 하나하나 새기며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 '우리가, 바라다'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공동체의 의미, 생명의 가치, 실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자세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는 작품을 한데 모았다. 3,000명의 관객참여로 완성되는 안규철의 <내 마음의 수평선>, 일본 노토 지진을 다룬 리슨투더시티의 <재난 이후>, 세월호 선체와 팽목항의 흠으로 제작한 전원길의 <잊을 수 없는 별들>, 청년세대의 기록을 담은 황예지의 <안개가 걷히면>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들이다.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4.16공방'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손으로 한땀한땀 제작한 공예작품도 만날 수 있다. 경기도미술관 로비에서 4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우리가, 바다》전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만날 수 있으며, 유리공예, 터프팅, 압화 등의 작품과 유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2점도 설치된다. 전시 관람료는 모두 무료이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개막일인 4월 12일과 폐막일인 7월 14일에는 퍼포먼스 작가 오로민경이 작가 김선기와 함께 자연으로부터 찾은 소리를 통해 공동의 위로와 기억을 잇는 사운드 퍼포먼스 <기억 위로 얻은 소리들>을 선보인다. 4월에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재난을 소재로 한 작업을 펼쳐온 작가 김지영이 <작가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공유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가진다. 5월에는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여 회화 작업을 펼쳐온 이우성 작가와 함께하는 드로잉 워크숍이 진행되고, 6월에는 개인의 삶을 소재로 사진과 글쓰기 작업을 하는 황예지 작가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토에세이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7월에는 리슨투더시티가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장애-비장애인 통합 재난 대비 워크숍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를 진행한다. 초·중·고등학생 단체 방문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체 대상 전시 투어 프로그램도 5월부터 진행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월 중 경기도미술관 공식 누리집(<https://gmoma.ggcf.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 주요 작품 이미지



김명희, <소풍날 아침>, 2005, 칠판에 오일파스텔, 118×179cm, 경기도미술관 소장



김윤수, <바람의 砂原>, 2014-2024, 비닐짚기, 가변크기



김준, <마지막 시간, 다시 찾은 공간>, 2022, 혼합매체 (목재, 스피커, 앰프, 다채널 사운드), 가변설치



김지영, <붉은 시간>, 2023, 캔버스에 유채, 259.1×194cm



김지영, <파랑 연작>, 2016-2018, 종이에 오일파스텔, 50×50cm (32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무진형제, <풍경(風經)>, 2016, 단채널 비디오, 칼라, 스테레오 사운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20분 57초



리슨투더시티,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2018,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31분



윤동천, <노란 방>, 2017, 철판 구조물에 칠, 모터, 말방울, 1369×688×560cm



이우성, <밤 걷다 기억>, 2017, 천 위에 블랙 제소, 210×210cm



이우성,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2023, 천에 아크릴릭 과슈, 210×2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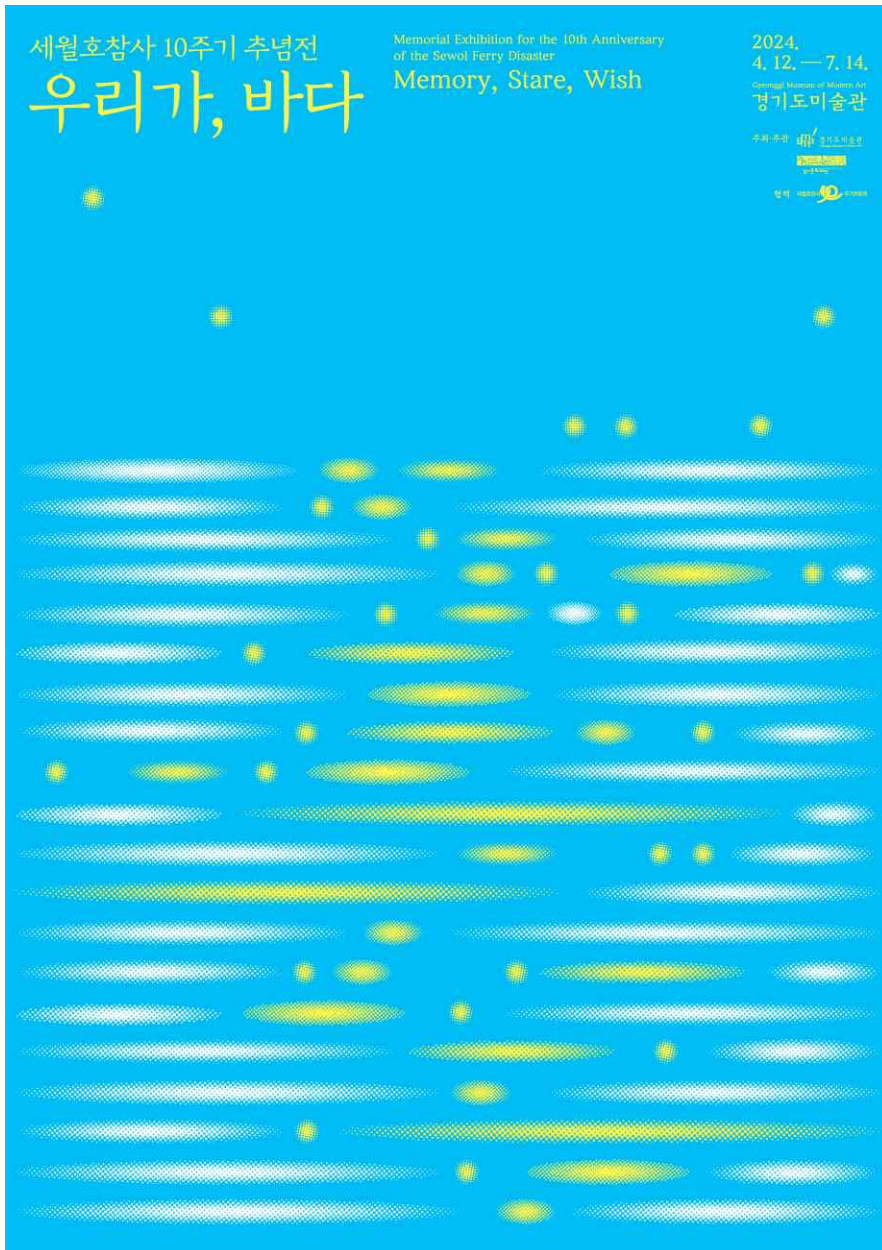


이진주×이정배, <별빛과 기도>, 2022, 자작나무합판, 우레탄페인트, 광목천, 수간채색, 39.5×79cm, 39.3×80cm, 40.5×80cm, ø40cm



홍순명, <팽목 1920>, 2019, 발견된 오브제, 혼합재료, 158×102×100cm

2. 전시 포스터



3.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료 : 무료
- 관람문의
T. 031-481-7000
H: gmoma.ggcf.kr
Facebook@ggmoma
Instagram@gyeonggimoma

4. 프로그램 안내

구분		내용	일정
퍼포먼스	개막 퍼포먼스 <기억 위로 얻은 소리들> -오로민경 with 김선기	자연으로부터 찾은 소리를 통해 공동의 위로와 기억을 잇는 사운드 퍼포먼스	4월 12일(금)
	폐막 퍼포먼스 <기억 위로 얻은 소리들> -오로민경 with 김선기	개막 퍼포먼스의 본공연으로 사전 워크숍을 통해 관객과 함께 자연으로부터 소리를 찾고 연주해보고, 그 경험을 확장하여 모두가 연대하는 사운드 퍼포먼스를 진행	7월 14일(일)
교육	작가와의 대화 : 김지영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재난을 소재로 한 작업을 펼쳐온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프로그램	4월 27일(토)
	드로잉 워크숍 : 이우성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여 작업하는 이우성 작가와 함께 예술을 통해 위안을 얻는 드로잉 워크숍	5월 17일(금)
	포토에세이 워크숍: 황예지	개인의 삶을 소재로 작업하는 황예지 작가와 함께 사진과 글쓰기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워크숍	6월 14일(금)
	장애-비장애 통합 재난 대비 워크숍 : 리슨투더시티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장애인/비장애인이 대비해야 할 방법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실전 대비 워크숍	7월 5일(금)
	사운드 퍼포먼스 워크숍 : 오로민경 with 김선기	오로민경과 김선기 작가의 <기억 위로 얻은 소리들>와 연계한 관객 참여 워크숍	7월 6일(토)
	학생단체 전시투어	초·중·고등학생 학급 단위 단체 관람객을 위한 전시 연계 투어 프로그램	5~7월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 031-481-7039/7032, edugmoma@gmail.com

5. 작품설명

권용래(1961)

권용래 작가는 캔버스 위에 빛을 담는다. 작가는 수많은 스테인리스 조각들을 망치로 여러 번 두드려 표면을 빛이 산란할 수 있게 만든 후 안료를 칠하고 평면인 캔버스에 고정하여 빛(조명)을 비춘다. 그 순간 하나의 빛은 스테인리스 조각을 만나 수많은 빛의 일렁임으로 변한다. 작품은 평면 회화와 설치 조각, 차가운 금속과 따스한 온기, 빛과 그림자와 같은 서로 다른 속성을 동시에 담아낸다. <빛 속의 빛>은 특히 노란색의 안료를 사용해 따스함을 더하며, 수많은 촛불의 군집을 바라보는 듯하다.

김명희(1949)

김명희 작가는 인물과 풍경을 칠판 위에 오일파스텔로 그린다. 작가는 1990년 강원도 한 시골 폐교로 작업실을 옮기며 버려진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칠판은 남아있는 분필 자국을 통해 과거의 시간을 드러내기도 하고 본연의 쓰고 지우는 기능으로 언젠가 작가의 그림도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칠판 자체가 시간, 기억, 상실을 드러내는 매체인 것이다. 작가는 더 이상 아이들이 남아있지 않은 폐교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여 풍요로운 기억과 실재의 부재를 드러낸다. <풍요한 부재>는 이런 칠판회화의 초기 작업이다. <소풍날 아침>은 학창시절 가장 인상적인 기억인 소풍, 수학여행, 마지막 학기의 모습들을 그려낸 작품들 중 하나이다.

김윤수(1975)

김윤수 작가는 경계의 지점을 바라보며 반복과 중첩을 통해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이나 공간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왔다. <바람의 사원>은 실제 인물들의 발 모양을 따라 비닐을 오려내고 쌓아가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반복을 통해 발의 형상은 점점 모호해지고 겹겹의 비닐은 푸른 자연의 풍경을 그려낸다. <달빛<4/3600시간의 파도>>는 달이 차고지는 동안 변화하는 파도의 움직임을 달빛의 색으로 그렸다. 작가는 신체의 가장자리인 발, 바다의 끝자락인 파도 등 경계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 잊혀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에 생각을 기울이게 한다.

김준(1976)

김준은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채집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소리 환경을 만들고 경험하게 한다. <숨>은 남이섬에 버려진 물탱크에서 채집한 소리로 구성된 작품이다. 오래전 식수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물탱크는 어느새 잊힌 존재가 되었지만, 작가는 버려진 구조물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증폭하여 여전히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한다. <마지막 시간, 다시 찾은 공간>은 16개의 나무 기둥에서 자연의 소리와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다. 작가는 이 작품에 강원도 평창 집에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대에 들려오는 소리에 응답한 아내의 연주를 담았다. 매순간이 과거가 되어버리는 시간을 소리가 기억으로 이끌고, 기억은 다시 그 시간과 장소를 불러온다.

김지영(1987)

김지영 작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재난이 드러내는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바람>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도 팽목항에 부는 바람의 속도를 BPM으로 변환하여 북소리로 표현한 작업이다. 관객들은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로 팽목항을 느낄 수 있다. <파랑 연작>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에 발생한 32개의 서로 다른 재난 상황을 신문 보도 사진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달한 창 너머의 바람> 역시 당시의 보도를 사실만으로 재편집하여 사건의 원인과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작업들은 재난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현재를 감각하게 하는 반면, <붉은 시간>은 초가 타들어 가는 과정을 커다란 캔버스에 가득 채우며 반복되는 재난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열감을 전한다.

리슨투더시티(2009 결성)

리슨투더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콜렉티브이다. 도시에서 사라지거나 밀

려나는 주변부에 주목하여, 드로잉, 영상, 연구, 출판, 세미나 등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고 연대하며 예술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은 장애인들 그리고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을 겪은 노인, 2020년 코로나19를 겪은 사람들과 대응해 온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재난에 대해 사고하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2024년 1월 일본 노토에서 발생한 지진을 다루는 <재난 이후>를 통해 재난을 통한 공간의 상실을 다룬다.

무진형제(1979,1983,1988)

무진형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예술적 의미를 포착하여 고전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와 함께 재구성하여 시각화하는 작업을 한다. <풍경>은 이전 세대가 남기고 간 질서와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두 형제의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위태로운 균열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청년들과 겹쳐진다. 누군지 모르는 자에 의해 무의미한 통제를 받기 일어나는 비극은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작품은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작가들이 가진 고민을 드러내며, 스타모션을 통해 낯선 인간, 낯선 시간, 신화적 존재들을 더욱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송주원(1973)

송주원은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이다.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주로 시간을 축적한 장소에 주목하고, 그 공간에 투영되는 삶에 관한 질문을 특정 장소의 리서치와 퍼포먼스, 전시, 상영의 방식으로 구현해 왔다. <내 이름을 불러줘>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작가의 몸짓으로 구성한 필름이다. 작가의 기존 작업이 주로 필름 안에 공간을 담았다면, 이번 작품은 여백의 공간에서 오직 무용수의 몸짓만이 드러나는 방식을 취한다. 대신 설치 방식을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전이라는 전시 공간 전체를 아우르며 관람객이 바라보는 장면엔 공간과 작품들을 덧입힌다.

안규철(1955)

안규철 작가는 일상의 사물과 언어 같은 삶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하며 관객에게 말을 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작품이 아닌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작품 안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펼쳐왔다. <내 마음의 수평선> 역시 수천 명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그림이다.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이 작품은 누구나 예술작품의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관객은 그림을 완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작가는 반짝이는 물결의 빛은 그림의 밖에서 온다고 했다. 작은 조각 속에 담긴 관객의 마음 하나하나가 윤슬의 빛이 되고, 관객의 마음속에 각자가 그린 수평선이 담긴 바다가 있다고 말한다.

오로민경(1988)

오로민경 작가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만드는 소리 풍경 작업과 작은 존재들에 관심을 기울여 연대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기억 위로 얻은 소리들>은 김선기 작가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퍼포먼스로 이번 전시의 개막일과 폐막일에 실연된다. 작가는 자연이 슬픔과 비극을 목격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이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무한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연으로부터 찾은 소리를 통해 공동의 위로와 기억을 이어가자고 한다.

윤동천(1957)

윤동천 작가는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화두로 회화, 판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작업을 펼쳐왔다. <무제>는 노란색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나열된 색만으로도 4월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노란 방>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공간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리본 조형물과 함께 말방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작품이다. 말방울 소리는 네팔 산악지대에서 위험을 알리는 수단이자, 멀리 있는 말을 찾기 위한 소리이다. 미술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찾

고 싶은 누군가를 혹은 잊혀져 가고 있던 존재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이우성(1983)

이우성 작가는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나 주변에서 포착한 순간들을 담담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린다. <세상은 내가 꿈꾸지 않게 한다>는 해변에서 바라본 바다의 풍경과 파도를 가르며 배 위에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현실과 사회적인 상황들에 대한 당시 청년작가로서의 감상이 묻어난다. <밤 걷다 기억>은 작가의 기억 속 파노라마 같은 수많은 장면 중 한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사라져가는 기억들 중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억은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은 2개의 서로 다른 작품이지만 동일한 제목을 가졌다. 선사시대의 암각화처럼 문자나 기호 그림이 뒤섞여 동시대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이정배(1974)

이정배 작가는 산수화를 기반으로 작업한다. 최근에는 도시의 건물들 사이에서 잘려진 채로 발견되는 자연의 모습을 오브제로 옮기고 수백 번의 칠을 거쳐 만드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건물 옆으로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는 햇빛>은 도시 풍경들의 틈 사이에서 발견되는 빛을 표현한 작품으로 회색빛 도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연의 모습이자 우리 사회가 잃어서는 안 될 따스함이기도 하다. <얼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작가의 작업실에서 매일 향을 피우고 그 재를 모아 물감을 만든 후 평면에 그린 작품이다. 회백색의 자국은 당시 참사를 바라보는 이들의 안개와 같은 마음, 눈물 자국을 떠올리게 한다.

이진주(1980)

이진주 작가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기초로 한 내면의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한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해에 작가는 개인적 아픔도 겪으며 상실에 대한 경험이 극대화되었고 이 시기를 지나며 '블랙 페인팅'이라 칭하는 작가만의 스타일을 담은 회화를 선보인다. 배경은 생략된 채 표현되는 신체는 파편화되어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기 충분하다. 작가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손을 그린 작품 중 하나인 <우물>은 감정을 물의 속성에 빗대어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정배×이진주

이정배와 이진주 작가는 부부이자 동료작가이다. 이정배 작가가 만든 한없이 어둠에 가까운 '이정배 블랙'으로 제작된 <별빛과 기도>는 이정배 작가의 오브제와 이진주 작가의 손 그림이 결합한 작품이다. 검은 별빛은 은은하게 빛을 뿜고, 기도하는 손은 각기 다른 온기와 질감의 대상을 감싸고 있다. <볼 수 있는-얼룩>은 작품 제목과는 상반되게 인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진주의 그림과 이정배의 회백색 그림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손 사이로 가져진 얼굴 속에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을지 읽어내는 것은 바라보는 관객의 몫이다.

전원길(1960)

전원길 작가는 자연 속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설치, 사진, 회화 작업을 해왔다. 작가는 세월호 선체와 진도 팽목항에서 흙을 채집하여 원형 테이블에 놓고 콘크리트로 덮은 후 구멍을 뚫었다. <잇을 수 없는 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구멍 사이로 녹색의 싹이 별의 모습으로 빛날 수 있게 한 작업이다. 땅의 모든 흙에는 씨앗이 웅크리고 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바람과 물을 타고 혹은 누군가의 발걸음에 의해 옮겨지다가 어느새 싹을 틔운다. 이 작품은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 긴 기다림으로 보냈을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빛나는 녹색을 통해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고자 한다.

홍순명(1959)

홍순명 작가는 동시대에 발생하는 사건을 바라보고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팽목> 시리즈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방문한 팽목항의 해변에서 모은 플라스틱, 어구와 같은 사물들로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 사물들을 엮어 형태를 만들고 랩으로 여러 번 감싼 후 천을 덧씌웠다. 천 위에는 사건과 관련한 풍경의 일부를 그려 사건의 기억을 간직하고자 했다. 작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형상은 추상적이지만,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작가만의 예술적인 실천의 결과이기도 하다.

황예지(1993)

황예지 작가는 개인의 서사를 바탕으로 수집과 기록을 하고 사진과 글의 형태로 시각화한다.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서사를 통해 사회적 이야기를 되짚어 보는 작업을 해왔다. <안개가 걷히면> 역시 작가가 애도의 마음으로 찾았던 팽목항, 목포 신항, 단원고등학교, 화랑유원지 등의 사진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사진 기자인 S와의 인터뷰를 진솔하게 담아냈다.